

‘위기의 40대’ 취업 17개월 연속 줄었다

광주·전남 10월 1만1000명 감소...전체 취업자 전년비 2만명 ↑ 60세 이상 2만7000명 늘고 36시간 이상 근로자 석 달 연속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광주 1만1000명·전남 9000명 증가하며 두 지역 모두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40대 취업자는 17개월째 ‘고용 위기’를 맞고 있다. 통상 전월제 근무자로 보는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광주 76만2000명·전남 10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만1000명·9000명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9월 6000명에서 10월 1만1000명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전남은 9월 2만명에서 10월 9000명으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2만명 늘었다고 해도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광주 11만2000명·전남 13만3000명 등 24만5000명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석 달 연속 지속하고 있다.

고용동향을 연령대별로 보면 광주·전남 40대 취업자 감소는 17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광주에서 4000명, 전남에서 7000명 등 1만1000명 줄었다.

20대 취업자 감소도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광주 4000명·전남 3000명 등 7000명 감소했다. 30대의 경우 광주에서는 1000명 늘어도 전남에서 4000명 빠졌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광주에서 1만2000명, 전남에서 1만5000명 등 2만7000명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이외 50대 취업자는 광주 6000명·전남 7000명 늘고, 15~19세 취업자는 광주·전남 1000명씩 증가했다.

20~40대에 두드러진 고용 쉼백에 일자리 수요는 자영업 등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광주는 2000명 줄었지만, 전남이 1만2000명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지난달 광주 2000명·전남 9000명 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9월에도 광주 3000명·전남 1만3000명 증가했다.

중국 수출여건 악화와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 제조업 취업자는 3000명 늘어났지만, 전남은 4000명 줄며 전월(-1000명) 감소 폭을 키웠다.

광주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000명 감소했다.

4개월 동안 감소세를 기록한 광주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 1000명 늘며 반등했다. 반면 전남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 5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월(1000명 증가) 이후 21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김영희 호남통계청 사회조사과 팀장은 “연말까지 광주·전남 취업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지역 제조업 경기와 금리, 물가,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증가 폭은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노란우산 가입자 정보 변경 이벤트

중기중앙회 오늘~12월 9일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2월9일까지 ‘고객정보 변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가 주소나 연락처·이메일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이벤트 기간 내 고객정보를 갱신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 중 2000명을 추첨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고객정보 변경 이벤트는 노란우산 웹·모바일 홈페이지(www.8899.or.kr)와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팩범공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고객이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중요한 제도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은행 정기예금에 56.2조 몰려 ‘역대 최대폭’

가계대출 6000억원 ↓ 10월 기준 첫 감소...신용대출 감소세 지속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예금(수신)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에만 56조원 넘는 시중 자금이 몰렸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은행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은행 기업대출도 한 달 만에 13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252조1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정기예금이 56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에서는 44조2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기업·가계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10월 한 달간 4조4000억원 늘어 9월 12조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분기 말 계절 요인 해소, 국고 여유자금 유입 등 영향으로 마니마켓펀드(MMF)가 6조4000억원 증가했고 주식형펀드(+3조1000억원)와 기타 펀드(+3000억원)도 늘었다. 반면 채권형펀드에서는 4조7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수신이 아닌 여신(대출) 상황을 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8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10월에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역대 처음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4~6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후 7월(-3000억원), 8월(3000억원), 9월(-1조3000억원)까지 늘고 줄기를 반복하다 10월(-6000억원) 2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94조8000억원)은 한 달 사이 1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전세자금대출 증가분이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62조8000억원)이 1조9000억원 줄었다. 10월 기준 첫 감소일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째 내리막이다. /연합뉴스

전기차 무선 충전 내달께 가능

초광대역 무선 기술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용 등 과기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발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더 폭넓게 사용하도록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납은 규제 때문에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은 선정한 과제들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내년 중에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무선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 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kHz)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받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로써 검사 소요 시간이 현행 7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 시 각 공정을 중단했던 불편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G망을 깔아 사용하는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주파수 공급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로보,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라면 스마트폰처럼 무선 허가 절차를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5G 특화망 1000곳이 구축되고 3조 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구리선 기반으로만 허용됐던 유선전화를 새로 설치할 때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전화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허용, 2500억 원 상당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늦어도 내년 중 모두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2’ 개막식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벤처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 글로벌 축제 ‘컴업 2022’ 개막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1일까지 서울서...19개국 250여명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2’가 9일 개막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11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WE MOVE THE WORLD’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부터는 정부·민간 협력 운영에서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 주도형 행사로 바뀌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행사를 주관한다.

중기부는 컴업을 세계 5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국내 위주로 운영되던 ‘벤처창업대전’을 글로벌 행사로 개편했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영국 등 19개국에서 250여 명이 참여하며 스타트

업을 주인공으로 한 콘퍼런스, 컴업스타즈, 오픈이노베이션, 부대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사흘간 이어지는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에서 8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다양한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벤처스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과 상담 부스가 운영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영국국 제프상부, 이탈리아무역공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업 세션도 준비됐다. /백기용 기자 pboxer@



은퇴설계 이렇게 하세요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소속 강사가 9일 퇴직을 앞둔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은퇴설계 세미나’에서 퇴직소득세 절세와 세금설계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호남통계청,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포럼 열어

호남지방통계청이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남원에서 ‘제2회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포럼’을 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지역통계 우수 지자체’에는 광주 광산구와 제주도, 익산시가 선정됐다.

광산구는 ‘광산형 데이터랩 구축 및 개방·분석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발표해 우수 사례에 꼽혔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올해 포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23개 기관 6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우수 지자체 시상 외에 기초 강연, 전문가 토론회, 지역 통계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발표는 ‘공공 및 민간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전·후 광주시 소상공인 변화상’과 ‘민간데이터센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제주 생활인구 작

성’ 등이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학 교수, 지역 연구원, 지자체 통계 담당관 등이 참석해 ‘공공 및 민간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호 청장은 “지역 통계는 지역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호남지방통계청에 개소한 통계데이터광주센터가 구축한 자료들이 지역 정책수립에 이바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빅스포 2022’ 1만8000여명 찾아

17건 수출계약·600여명 현장 면접

한국전력공사는 지난주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 2022’ (빅스포 2022)에 1만7566명이 찾았다고 9일 밝혔다.

빅스포 2022는 이달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올해는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공연 등 행사는 축소해 진행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린 박람회에서는 한국전력이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기술별

투자전략을 담은 ‘캡코 연구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첨단 전력 신기술이 모인 ‘신기술전시회’에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LS전선, 효성중공업(주), 오라클 등 국내외 대기업과 혁신 창업기업 등 총 233개 기업이 참여했다.

13개국 25명의 구매 담당자(바이어)가 박람회장을 찾아 29개 중소기업과 97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7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수출 계약 규모는 4490만달러(642억원)로, 전년 실적보다 152% 증가했다.

에너지 기술거래 장터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포집’ 기술을 포함한 한전의 우수기술 70개를 22개 기업에 기술이전 및 거래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6억3000만원 상당이다.

에이파워(주) 등 15개 중소기업은 30개 기술을 무상으로 받았다.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에는 총 35개 기업이 참가했다. 1800여 명의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이곳을 찾아 그중 559명이 현장 면접을 봤다.

발명특허대전에서는 한전 경기본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코리아(주) 등 총 4개팀이 분야별 대상을 받았다. 참가객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빅스포 스타 기업상’은 한빛이디에스(주)가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4.41(+25.37)
▲ 코스닥	714.60(+1.27)
↓ 금리(국고채 3년)	4.086(-0.070)
↓ 환율(USD)	1364.80(-20.10)